



바꾸지 않으면 연합뉴스의 미래는 없다!! 연임저지 투쟁, 목적 아닌 수단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새로운 역사의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우렁찬 투쟁의 함성과 함께다.

그 출발점은 박정찬 사장의 연임저지요, 종착지는 회사 바로 세우기이다.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회는 지난달 29일 결국 박 사장을 차기 사장 내정자로 정하는 악수를 두었다.

지난 3년 공정정보도 훼손, 무원칙 인사, 사내민주화 퇴보를 체험하고 목격 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서다.

회사는 오는 21일 주주총회를 열어 박사장의 연임을 확정한다.

이에 맞서 노조는 3·1절 노동 거부에 이어 오늘(2일) 연가투쟁과 조합원총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노조는 박 사장의 내정 당일 확대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 “오늘의 결정을 패배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투쟁의 불꽃은 박 사장

의 연임 저지를 움켜질 때까지 활활 타 오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공정보도’ 논의틀인 편집위원회의 노조측 위원들도 1일 편집위 보이콧을 결의하고 지난 3년간 ‘상식보도’ 방기에 대해 “통렬한 자성과 국민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연임 저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사상 첫 집 단연가(240여 명) 투쟁에 들어가 마포구 공덕역 주변 진흥회 사무실 앞에서 박 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사장추천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장추천위 위원은 진흥회 추천 3명, 진흥회·회사 공동 추천 1명, 노조 추천인사 1명 등 모두 5명이다.

사장추천위는 이런 인적 구성 탓에 조합원들의 연임반대에도 박 사장을 포함한 응모자 2명 전원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29일 회의에서



이들 후보를 면접 심사하고 박 사장을 내정자로 결정한 것이다. 진흥회는 대령 2명, 여당 2명, 야당 1명, 방송협회 1명, 신문협회 몫 1명 등 모두 7명으로 짜여져 있다.

노조 상근자와 집행부, 그리고 공정정보도위원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5일

부터 열흘 간 회사와 진흥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지금 언론민주화를 향한 언론노동자들의 절규를 목도한다.

YTN 노조는 지난달 29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결과 찬성 66%로 가결했다. MBC 노조는 이미 파업에 들어갔고 KBS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들 회사 노조는 모두 공정방송과 낙하산사장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C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주도한 기자회견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미디어는 이들 언론과 함께 연합뉴스의 사장 연임저지 투쟁에도 시선을 두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오늘 조합원총회가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정정보도의 햇불을 지켜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인사형평과 사내민주화추진을 결의하는 한마당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노조는 이 모든 것이 또한 시민들에게 지난 과오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본다.

이미 노조는 조합원들의 전례없는 참여 열기로 그 과정 자체에서 승리하고 있다.

노조가 완전한 승리를 손에 쥐어 만방에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 연합뉴스는 진정한 하나가 될 것이다.

◇ 일지

▲2011년

- 12.3 노조 성명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방송준비 실패 등 부실 경영 비판
- 12.9 노조 성명서 ‘3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밀실 구성 안된다’
- 12.13 28~31기 성명서 ‘바른 언론 빠른 통신’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방송 파행 운영 비판.
- 12.14 21~27기 성명서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연합의 명예를 회복하라’
- 17~18기성명서 ‘연합뉴스국가기간통신사로돌아와라’
- 32기 성명서 ‘회사의 앞날에 대한 선배들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 19기 성명서 ‘19기는 부끄럽다’
- 20기 성명서 ‘빙산, 타이타닉, 그리고 연합 미디어그룹’
- 12.15 16기 성명서 ‘후배들의 충심어린 문제제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 12.16 17기 성명서 ‘연합뉴스의 위상 회복과 뉴스Y의 조속한 본궤도 진입을 희망하며..’
- 12.30 노조 성명서 ‘이 분 기억하십니까?’ = 연합뉴스TV 김석진 상무의 정치 참여 비판

▲2012년

- 01.05 노조 성명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국민이 지켜본다’ = 박정찬 사장 연임설 비판
- 01.13 노조 글 ‘사원 무시 경영의 끝은 어디인가’ = 연합뉴스 TV 추가 파견 비판
- 01.17 노조 글 ‘이런 인사를 누가 봤는가’ =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란 기초질 주장 반박
- 02.01 노조 경영진 평가 결과 = 연임 반대 71.7%
- 02.13 노조 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며’ = 연임저지와 공정정보도 쟁취 투쟁 선포
- 02.15~02.23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1인 시위 = 본사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1인 시위와 릴레이 단식
- 02.20 대의원 대회 = 박정찬 사장 연임 거부 투쟁 결의, 쟁의조정 신청 여부 노조 집행부 위임
- 02.24 노조 글 ‘순리를 거스를 순 없다’ = 박정찬 사장 입장표명 반박
- 02.27 연가투쟁 1일차 = 뉴스통신진흥회 앞 집회
- 02.28 연가투쟁 2일차 = 연합뉴스 본사 앞 기자회견
노조 글 ‘연합뉴스, 파국을 끝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회에 결단 촉구
- 02.29 연가투쟁 3일차 = 뉴스통신진흥회 앞 집회
확대 대의원 대회 = 수요일 특근 거부 및 연가투쟁 결의. 비상조합원 총회 개최 결의
노조 성명서 ‘뉴스통신진흥회의 결정은 투쟁의 기름일 뿐이다’ = 진흥회의 박정찬 현 사장 후보 결정 비판

<성명서>

뉴스통신진흥회의 결정은 투쟁의 기름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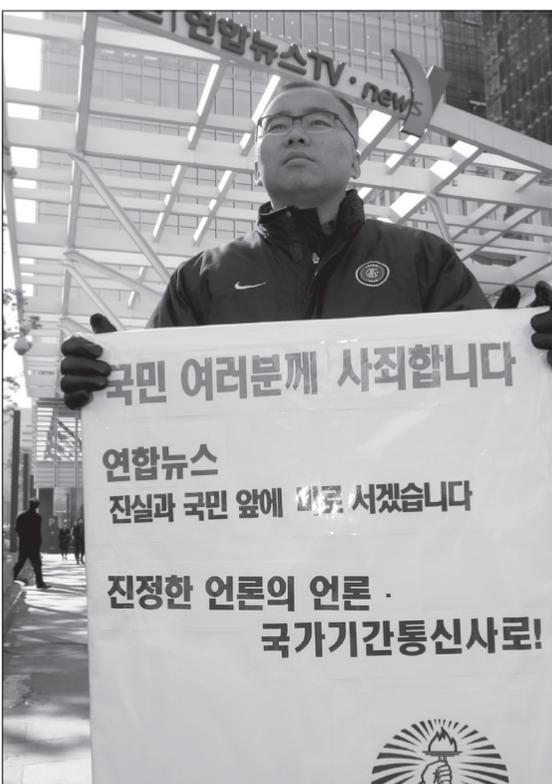
무참하다.
 오늘 뉴스통신진흥회는 차기 연합뉴스 사장 최종 후보로 박정찬 현 사장을 결정했다. 공정보도 훼손, 무원칙한 인사, 사내 민주화 퇴행의 장본인인 박 사장의 부적격성을 호소해 온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끝내 외면한 결과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영하의 칼바람을 견뎌가며 염원한 박 사장 연임 저지의 작은 꿈은 오늘 뉴스통신진흥회의 결정으로 산산조각났다.
 이 참담함은 연합뉴스 구성원들 한 사람의 뇌리에 오늘 박 사장의 손을 들어준 뉴스통신진흥회를 또렷하게 각인시킬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오늘 권력의 거수기임을 자인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오늘의 결정을 패배선고

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난 3일 간의 연가투쟁에서 확인한 뜨거운 투쟁 의지를 토대로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이에 연합뉴스 노조는 연가투쟁에 이어 3·1절 휴일근무(공휴당직·철야당직·야간당직) 거부, 3월2일 연가투쟁을 통한 제작거부로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투쟁의 불꽃은 박 사장의 연임 저지를 움켜질 때까지 활활 타오를 것이다.
 노조는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향후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3월 2일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한다.
 우리는 굳건한 의지로 단합하고 연대해 기필코 연합뉴스를 바로 세워낼 것이다.
 2012년 2월29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성명서>

노사편집위 불참 결의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총의가 깃뻛히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투쟁의 촉매제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 시각 이후 노조는 노사 편집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다.
 지난 3년간 공정보도, 아니 상식보도는 철저히 버림받았다.
 이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국민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연임 저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노조는 편집위가 상식보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편집위 월례 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조측 편집위원(고형규 김성진 강훈상 류지복 정성호) 일동



차가운 공덕동 길바닥 달군 뜨거운 애사심



오전 9시. 마포 공덕동의 뉴스통신진흥회 앞. 플래카드에는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시작! 박정찬 연임저지’라는 글씨가 펴려있고, 조합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영하 6도에 체감기온 영하 15도. 연합뉴스 사장 최초의 거리 투쟁이 펼쳐진 날, 바람은 매섭고 차가웠지만, 거리에 모인 조합원들의 입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터져나왔다.

연가 투쟁에 참여한 사람은 조합원 450명의 절반이 넘는 240명. 이들 중 거리에는 150명이 뛰쳐나왔다. 이는 당초 집행부가 예상했던 참가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다.

‘부끄러운 기사는 이제 그만 쓰고 싶다’는, 더 이상 박정찬에게 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한데 뭉쳐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공정보도 망가뜨린 박정찬은 자격없다”, “연합뉴스 말아먹은 박정찬은 물러나라”, “3년동안 욕봤네요. 이제는 폭주세요”, “격정말고 폭주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첫 집회, 처음 외쳐보는 구호,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외쳐보는 ‘박정찬 반대’의 목소리는 이렇게 터져나왔다.

◆ 첫날. 뉴스통신진흥회 앞, 발은 얼었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0..사장추천위원회가 2명의 사장 후보를 뽑는 첫날 투쟁. 추위는 몸 곳곳에 붙인 핫팩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지독스러웠다. 발은 푹푹 얼고, 위원장과 정의부장, 박지호 조합원을 비롯한 일부는 머리까지 푹푹 얼었지만 회의 내내 조합원들의 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박정찬 바로 알기, 나는야 퀴즈왕’ 순서였다.

구호는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 모두에게 친근해진 그 이름 ‘을지문덕’. ‘박정찬 사장이 학연·지연을 끊겠다며 고등학교 때 노트에 썼던 글자는?’, ‘사내게 시판에 올 수 있는 글은?’, ‘연합뉴스TV 김석진 상무가 출마하는 선거구 이름은?’, ‘박정찬 사장의 김석진 상무에 대한 평가 중 틀린 것은?’ 등등 주옥과 같은 퀴즈와 기상천외한 답변이 이어졌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퀴즈는 바로 ‘박정찬 사장이 사원과의 대화를 하고 난 뒤의 첫마디는?’이라는

질문.

답은..”2시간동안 오줌을 참았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네”였다. 조합원들, 웃기는 웃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0..처음 거리에 나온 조합원들은 지난 3년간 박정찬 사장 하의 연합뉴스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 조합원은 “진시황이 자신의 왕국이 건설되는 걸 보겠다며 불로장생을 믿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겠다며 유신을 실시했는데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박정찬의 연임 시도를 진시황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공정보도를 기치로 건 연합뉴스의 거리투쟁은 한겨레 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KBS 등 다른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현장에 모인 기자 중 민영통신사를 표방하는 뉴스원 기자는 오보를 통해 ‘연합뉴스 바로서기’를 지지를 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집회 내내 노조의 가열찬 투쟁에 지지의 눈빛을 보내던 이 기자는 ‘노조가 한홍구 교수를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기사에 적으며 사장 추천위원을 사장 후보로 바꾸는 ‘빅엿’을 먹였고, 스스로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다른 통신사들의 견제를 물리치고 바로 서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

0..‘박정찬사장 연임저지’ 투쟁으로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특수를 본 곳이 한군데 있었으니, 바로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모여든 종로의 한 호프집이었다.

호프집을 뒤덮은 인파는 집회 참여인원을 넘어섰고 연가투쟁 동참 인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투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조합원들, 혹은 비조합원 선배들이 모여들었고 술자리는 축제가 됐다.

하지만, 조합원·사원들, 술은 많이 마셨지만 안주는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다. 박정찬 사장과 지난 3년이라는 훌륭한 안줏거리가 있었고, 간만에 공정보도를 세상에 외친 이날, 그리고 참 좋은 동료들이 함께 한 이날, 술자리는 밤새 이어졌다.

◆ 둘째날, 사장실 앞 피자·김밥파티~

0..스포츠레저부 등 일부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과 연가투쟁 동참으로 힘을 얻은 조합의 둘째날 투쟁은 회사에 집중됐다.

포문은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의 사내 마와리. 지

지를 호소하며 회사를 돌던 집행부의 가슴을 예상치 못하게 몽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박정찬의 연임 반대 구호에 박수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편집국에 처음 올려퍼진 ‘공정보도’의 외침. 어디서 누가 박수를 통해 지지를 표한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조합원, 비조합원 선배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0..이어 센터원 사옥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찬 쪽팔려서 연임포기하게 하기’ 투쟁에 돌입한 조합원은 사장실 앞 침묵시위를 통해 ‘이래도 안 그만둘래’라는 외침을 몸으로 들려주기로 했다.

소문대로 다른 층보다 지나치게 널찍한 임원실 앞 좁은 ‘복도’에서 조합원들은 숨가쁜 투쟁 중 피자·김밥 파티라는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다.

박정찬 사장,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셨’지만, 조합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복도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지나치게 많은 양의 김밥과 피자를 흡입하는 ‘폭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장실 앞 사원 피크닉, 상상도 못해봤지만 이빨에 김 끼고 입술에 치즈 묻은 사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 셋째날, 박정찬 어서와라~ 뺨치기의 달인들

0..사장 연임여부를 결정짓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날. 예정했던 이틀보다 연가투쟁을 하루 연장했음에도, 진흥회 건물 앞의 조합원들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조합원들은 그동안 같고 닳은 저만의 ‘뺨치기’ 기술을 선보이며 면접을 받으러 진흥회에 올 박사장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햄버거 까먹으며 박 사장을 기다리던 조합원들은 2~3시간의 뺨치기 끝에 개인 업무인 차기 사장 면접에 회사의 공용차를 타고 뺨뺨한 얼굴을 내민 박 사장과 맞닥뜨렸다.

‘사장님, 제발 이제 집에서 쉬라’는 조합원들에게 박사장은 애써 여유있는 척 미소를 지어봤지만 조합원들의 성난 눈은 박사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결정된 이사회의 연임 내정 결정. 박 사장은 다시 느끼한 미소와 함께 진흥회 건물을 떠났지만 연임 저지를 위한 사원들의 함성은 한층 더 커져갔다.

